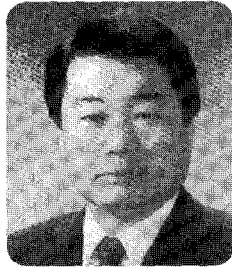


## 불편속의 교훈



김규복  
(본회 부산지회장)

‘참을 인(忍)자 셋이면 아이디어는 없다?’

불편함을 무조건 참아버리면,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오랜 세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다. 시집가서 삼년은 귀머거리에 병어리에 장님이 되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인내를 강요받았다. 과부가 되어 허벅지에 침을 콧으며 ‘참아야 하느니라’를 반복했다.

정말 참는 것이 미덕일까? 물론 인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아름다운 덕목이다. 인간에게 인내력이 없다면 이 세상은 더욱 각박하고 삭막하게 변할 것이 분명하다. 인내력이 없는 인간은 오히려 동물에 가깝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인내는 미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비굴한 포기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저 ‘참는다’는 인내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며, 도덕적 인간의 표상도, 그 무엇도 아니다.

인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때로는 고통을 참아내는 과정을 뜻한다. 문제에서 등을 돌려, 외면하는 것은 인내가 아닌 것이다.

‘에잇, 정말 이게 뭐야?’

‘속상해. 뭐 이렇게 다 있어?’

하루에도 수십번씩 우리는 이런 말들을 내뱉는다. 커피를 마시다가, 혹은 슬리퍼를 벗다가, 길을 걷다가, 버스에 올라타다가, 여기 저기 복

병처럼 숨어있는 불편함에 부딪치면 발끈 화를 내고 얼굴을 붉힌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잠시뿐,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불편함을 초래했던 그 문제도, 심지어 자신이 화를 냈던 일도 모두 깡그리 잊고 만다.

‘뭐 어찌겠어. 내가 참아야지, 화난다고 뽀족한 수가 생기겠어?’

‘참는다’라는 허울아래, 혀를 몇번 차는 것으로 문제를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 버리는 것이다.

실수는 다시 되풀이 된다. 다시 얼굴을 붉히고 혀를 차고, 한숨을 쉬고, 잊어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꾸 반복되는 일상이다.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전 가능성도 전혀 없다. 마치 전혀 해결책이 없는듯 하다. 그러나 이 악순환의 바퀴를 멈추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단 한가지 생각만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정말 불편해서 안되겠군. 좋은 해결책이 없을 까?’

불편을 참지 않고, 정면 대응을 하면, 한없이 돌던 쳇바퀴는 멈춘다. 대신 꼼짝없이 묶여있던 창의성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동안에 발전의 원동력이 제공되는 것이다.

지금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지는 남성용 이중 팬티, 어쩐지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어울리지 않는 상품 같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 아이디어 상품의 나이는 고작 삼십여살, 꽤 젊은 편에 속한다.

이 아이디어가 나오기 이전에는 속옷의 창구 명에 단추가 달려있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일일이 단추를 풀고 채우는 번거러움을 겪었다.

‘속옷에도 단추를? 너무나 불편하겠다. 그러다 실수라도 저지르면 어쩌려고...’

지금에야 이렇게 말하면 놀라겠지만, 삼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불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밥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는 일상 생활처럼 그냥 참아버리는 당연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이 불편을 곱게 보아넘기지 않았다. 그 주인공인 일본의 한 여성, 당시에는 곱디 고왔던 새색시였다.

‘정말 민망하군. 사람들 많은 곳에서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녀는 남편의 속옷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다. 정작 남편 자신은 별반 신경을 쓰지 않는 문제였지만, 그녀로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참는 사람이 이상스럽게 느껴졌다.

‘새색시가 해괴한 짓을 한다고 흉볼지도 모르

지만, 이대로는 안되겠어. 남자들은 그런 불편을 왜 참고 있는걸까?’

그녀는 몸이 달아서 속옷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속옷과의 한판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는 남편 양복의 안주머니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 두겹으로 가리면 되겠다. 이중으로 창을 내면 단추를 달지 않아도 되겠구나!’

단순한 아이디어로 어려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낸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곧 실용화되어, 모든 남성을 단추의 공포에서 해방시켰다.

불편은 여러 면에서 생활에 제동을 건다. 불쾌감을 조성하고, 일의 진행을 늦추며, 때론 사람을 위협한다.

복병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우리의 뒷머리를 세계 후려치기도 한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불편이야말로 무한한 발상의 원천임을 알 수 있다. 불편은 내가 파고들 틈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피어날 한줌의 자양분이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천만의 말씀! 안 참는 자에게 아이디어가 있다. **발특9604**